

광주·전남 떠나는 20대 청년인구...올해에만 9천여명 순유출

3분기까지 순연령대서 최다 유출 기록

대학 진학·일자리 등 주요 원인 분석

광산구·북구·목포·여수 인구 감소 심화

광주·전남을 떠나는 20대 청년 인구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올해 들어 3분기까지 광주·전남에서 타 지역으로 빠져나간 순유출 인구는 9천여 명으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때문이다.

17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호남권 지역 경제 동향'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광주·전남 20-29세 인구 8천961명이 순유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인구 순유출은 전출 인구가 전입 인구보다 많아 해당 지역에서 인구가 빠져나가는 상태를 의미한다.

광주의 경우 1분기 1천27명, 2분기 1천76명, 3분기 1천300명 등 20-29세 인구 4천122명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 20대 순유출 인구는 지역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전남 역시 20대 순유출 인구가 가장 많았다. 1분기 2천72명, 2분기 997명, 3분기 1천770명 등 총 4천839명의 청년 인구가 지역을 떠나면서 광주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광주·전남 20대의 순유출은 대학 진학과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한 외부 이동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올해 1-3분기 광주·전남의 순유출 인구도 총 1만530명에 달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는 1분기 4천945명, 2분기 2천854명, 3분기 1천657명 등 총 9천456명이 순유출됐다. 전남은 1분기 247명, 3분기 1천499명이 순유출된 반면, 2분기에는 672명이 순유입돼 전체적으로는 1천74명이 순유출됐다.

지역별 세부 이동을 살펴 보면 광주는 광산구·서구·북구를 중심으로 순유출이 집중됐다.

1분기에는 광산구 999명, 서구 766명, 2분기에는 광산구 2천62명, 북구 1천807명, 3분기에는 북구 1천516명, 서구 752명 등 순으로 타 지역 이동이 많았다.

전남은 목포·여수에서 순유출이 많았다. 1분기 목포 1천858명·여수 1천177명, 2분기 목포 1천37명·여수 582명, 3분기 목포 1천387명·여수 944명 등이다.

지역 경제는 청년층의 지속적인 유출이 산업과 노동시장 경쟁력 약화를 초래해 지역 성장 기반을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는 만큼 글로벌 기업 유치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됐다.

한상원 광주상공회의소 회장은 "광주 인구가 140만명 아래로 떨어지는 등 감소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20-30대 청년층의 유출은 지역 경제 전반을 위축시키고 근간을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해 경제 활동의 주체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기업 유치와 반드시 필요하다. 지역 인프라 부족으로 기업들이 투자를 주저한다면 이를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과감하고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업을 끌어들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태호 기자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UAE·이집트·튀르키예 등 4개국 순방에 나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환송 나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함께 공군 1호기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李대통령, G20 계기 아프리카·중동 4개국 순방

이집트·남아공·튀르키예 연이어 방문

올해 마지막 다자외교 7박10일 일정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오전 서울공항을 통해 아랍에미리트(UAE)의 수도 아부다비로 출국하면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 아프리카·중동 4개국 순방 일정을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이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의 출국을 배웅했다.

신디 음쿠쿠 주한 남아프리카공화국 대사, 살리 무라트 타메르 주한 튀르키예 대사, 오마르 압 달리아흐메드 엘셰이크 주한 이집트 대사대리, 알사마히 잇사 주한 UAE 대사관 공관차석 등도 환송에 동참했다.

이 대통령은 환송 인사들과 웃으며 대화와 악수를 나누는 뒤 김여사와 함께 공군 1호기에 올랐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종료된 지 16일만에 다시 다자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하는 것이다. UAE·이집트·남아공·튀르키예를 차례로 방문하는 7박10일 일정이다.

특히 한미 관세·안보 협상을 일단락 지은 뒤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으로 외교를 다변화한다는 데 이번 순방의 의미가 있다. 남아공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의 경우 사실상 올해 이 대통령의 마지막 다자외교 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 대통령은 첫 방문국인 UAE에서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나하얀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양국 간 인공지능(AI)·방위산업 등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또 양국의 경제인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행사에도 참석할 계획이다.

이후 이집트로 이동해 20일 압델 파타 엘시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카이로대학 연설 등의 일정을 진행한다.

남아공에서는 G20 정상회의의 3개 세션에 참석해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후변화와 재난, 공정한 미래 등에 관해 논의한다.

한국이 주도하는 중견 5개국 협의체인 '믹타'(MIKTA) 소속국 정상들과의 회동도 예정돼 있다.

이후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튀르키예의 수도 앙카라를 방문,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및 MOU 서명식 등을 소화한 뒤 26일 귀국한다.

/연합뉴스

오늘 '형사소송법·보험업법 개정 공청회'

정준호 "실질적 입법 논의 출발점 기대"

더불어민주당 정준호·민병덕·김남근·박홍배 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1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경제정의·공정사회를 위한 형사소송법·보험업법 개정 공청회'를 공동 개최한다.

공청회는 재벌·특권층의 사법처리 회피와 기업 지배구조 왜곡 문제를 진단하고 민생경제와 시장 신뢰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형철 경제민주화시민연대 대표와 노종화 경제개혁연대 변호사가 발제를 맡아 병보석 요건 강화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보험사 자산의 대주주 편취 방지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의 필요성과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이어지는 주제 토론에서는 이호동 서울과학종합대학원 노사ESG 과정 주임교수, 김성환 L-ESG 평가연구원 부원장, 조승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강도연 청춘노무법인 대표,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이 사법 정의·경제 정의를 위한 다각도의 정책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준호 의원은 "병보석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특권층의 사법 회피와 보험사 자산을 대주주의 사익 수단으로 사용하는 불공정 관행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며 "공청회가 민생경제 안정화와 자본시장 건전성 회복을 위한 실질적 입법 논의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진수 기자

제헌절, 18년만에 공휴일 부활 전망

국회 행안소위서 법안 통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제헌절(7월17일)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에는 2008년 이후 18년 만에 제헌절 공휴일이 부활하게 된다. 제헌절은 2006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현재 우리나라 5개 국경일(3·1절, 광복절, 개

천절, 한글날, 제헌절) 가운데 공휴일이 아닌 날은 제헌절뿐이다.

이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제77주년 제헌절인 지난 7월17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제헌절은 헌법이 제정·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임에도 이른바 '절'로 불리는 국가 기념일 가운데 유일하게 휴일이 아닌 것 같다"며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면 좋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연합뉴스



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광주)
Korea Association of Health Promotion

건강검진 어디서 받을까?

검진은 의료기관에서

예약문의 062)363-4040

<http://gwangju.kahp.or.kr>



심의번호
220603-중-139779